

## 기타마에부네의 도착

쓰치자키는 1700년대 중반부터 1900년대 초까지 오사카와 홋카이도를 연결하는 교역로의 주요 중계지였습니다. 일본 북쪽의 도시 및 거리를 연결하는 항로를 오갔던 목재 상선은 기타마에부네(북으로 향하는 배)라는 총칭으로 불리며 물자, 문화, 정보의 교류를 촉진했습니다. 쓰치자키의 상인 중에는 이 무역으로 축적된 부로 당시 사회적 상류계급이었던 무사보다 부자가 된 이도 있었습니다.

항로가 처음으로 열린 것은 1670년대의 일이지만 기타마에부네 무역은 독립 상인이 배를 전세 내어 상품을 운송하게 된 1700년대 중반에 활발해졌습니다. 상인들은 단순히 오사카에서 홋카이도로 물건만 운반한 것이 아니라 항로에 있는 각 항구에서 적극적으로 상품을 매매했습니다. 항로 주변 지역의 물가 차이를 이용해 지식과 경험을 살려 가격을 설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무역 전략은 수익성이 좋았고, 한 번 왕복에 현재 물가로 1억 엔의 이익을 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인기가 있었던 상품 중 하나는 홋카이도 바다에서 잡힌 청어였습니다. 청어는 식재료였을 뿐만 아니라 발효시켜 좋은 비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기가 없는 시대에는 귀중한 등잔 기름의 원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공품은 생선 원가의 5~10 배가 되는 가격에 팔 수 있었습니다.

## 항구 주변의 유적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까지 그려진 에마키(그림 두루마리) 「아키타카이도 에마키(아키타 가도의 풍경)」 중 쓰치자키는 활기 넘치는 항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화가 오기쓰 가쓰타카(1746~1809)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3권의 에마키에서는 200년 이상 전의 옛 항구 마을 생활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림 속의 건물 중 몇 채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에마키의 한 장면에는 해안이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 석탑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석탑은 항구에 입항하는 배사람들에게 일종의 랜드마크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1643년에 부유한 상인이 세운 이 석탑은 1804년과 1810년 지진으로 무너졌습니다. 이후 1967년에 같은 디자인의 석탑을 이전해 왔습니다.

에마키에는 호토지 절의 화장암 탑도 그려져 있습니다. 이 탑은 쓰치자키에 입항하려던 상선이 갑작스러운 태풍에 휘말린 사건을 계기로 17세기~18세기

사이에 세워졌습니다. 상선은 난파 직전의 상태였는데 그때 갑자기 절 근처에서 신비한 빛이 나타나 선원들을 무사히 육지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상인들은 절의 수호신이 인도의 빛을 보내준 것이라고 믿고 감사의 뜻으로 오층탑을 세우기 위한 자금을 기부했습니다.

쓰치자키 미나토 역사전승관에서는 인터랙티브 디지털 버전 에마키를 통해 현재의 풍경 속에 남아 있는 유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